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족음악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격성 및 가족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서 경 희

가족음악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격성 및 가족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서 경 희

인 준 서

서경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가족음악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격성 및 가족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안양시 D 지역아동센터와 H치료센터 내 교사용 공격성 평가척도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아동들 중 가족이 함께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세 가족이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 2회, 40분씩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은 교사용 아동 공격성 척도와 가족응집력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질적 분석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변화 경험과 가족응집력에 대한 변화 경험을 매 회기 녹음과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무스타카스(C. Moustakas)의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양적분석 결과 첫째, 높은 공격성을 보인 3명의 아동 모두 공격성이 감소하였다. 아동 A는 공격성 점수가 32점에서 20점으로 12점의 감소를 보였으며 아동B는 39점에서 28점으로 11점의 감소를, 아동C는 36점에서 28점으로 8점의 감소를 보였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3가족 모두 가족 응집력 점수가 증가하였다. 가족A는 28점에서 34점으로, 가족B는 39점에서 41점으로, 가족C는 30점에서 34점으로 증가하였다. 질적 분석 결과 첫째, 아동들은 공격성의 변화에서 스트레스 감소, 자기조절 능력 향상, 공감능력 향상, 새로운 자가지각, 심리적 지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응집력 변화에서 친밀감 향상, 가족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지각,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음악치료가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가족응집력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 정의	5
1) 공격성	5
2) 가족 응집력	5
3) 가족음악치료	6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의 공격성	6
1) 아동의 공격성 발달과 특성	6
2)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
3) 공격적 아동의 치료	10
4) 공격적 아동의 음악치료	11
2. 가족음악치료	13
1) 가족음악치료의 개념과 특징	13
2) 가족음악치료의 치료 기법	14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8
2. 측정 도구	21
1) 교사용 공격성 척도	21
2) 가족 응집력 척도	22

3) 내용 분석	22
3. 연구방법 및 절차	22
1) 연구 기간과 장소	22
2) 사전 · 사후 검사	23
3) 프로그램 절차	23
4) 음악치료 프로그램	24
4. 자료 분석	27

VI. 연구 결과

1. 아동의 공격성과 가족응집력 평가척도 사전·사후 검사 비교	29
1) 아동의 공격성 사전·사후 검사 결과	29
2) 가족 응집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31
2. 가족 음악치료에 참여한 아동의 공격성과 가족응집력 변화에 대한 경험	32
1)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경험	33
2) 가족응집력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경험	50

V. 결론

1. 결론 및 논의	59
2. 제 언	60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한회기 구성 -----	23
<표 2> 아동의 공격성 사전·사후 검사 결과 -----	29
<표 3> 아동의 공격성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검사 결과 -----	30
<표 4> 가족응집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	31
<표 5> 아동의 공격성 변화 경험 구조 -----	32
<표 6> 가족의 가족응집력 변화 경험 구조 -----	33

그림 목 차

<그림 1> 아동의 공격성 사전·사후 검사 결과 -----	29
<그림 2> 가족응집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	3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교와 사회에서 청소년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실제 학교 폭력은 2012년 1월 12.2%에서 7개월 후 8.5%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러나 통계적인 학교 폭력이 감소되었을 뿐, 학교 폭력 신고센터의 신고건수는 2012년 하루 평균 219.5건에서 2013년에는 301.8건으로 37.5%나 증가하였고(연합뉴스, 2013.6.17.), 학교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안전행정부, 2014). 더욱이 심각한 것은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루었던 예전과는 달리 언어적 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저 연령화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2) 보고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중 74.6%가 초등학교시기에 처음 가해 행동을 한다고 한다.

학교 폭력은 아동의 공격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이복실, 2007). 아동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학교 부적응,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품행장애, 학업 중단 등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여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정신적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이혜진, 2013). 아동기에 나타나는 초기 문제 행동은 비교적 정도가 가벼워 적절한 치료와 중재가 가능하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만성화되어 청소년 비행이나 성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남소연, 김영희, 2000). 이는 어릴 때 높은 공격성을 보인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 반사회적 범죄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Eron(1987)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요인들을

가지고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들도 시행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자아 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김은임, 2011; 심승원, 2000)과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개인적 기질 및 성격에 관한 연구(한윤영, 2010)를 보면 아동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아동들의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아동의 개인적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고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들이 사회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어 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2013년 정부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교 폭력에 대한 수업을 의무화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폭력의 정도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정서만을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아동들의 부모나 아동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같은 환경적 변인과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혜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잘못된 훈육, 감독 소홀 등과 같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비행뿐만 아니라 범죄를 행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부모의 위치,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자녀의 가치관과 지적, 정서적,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성환재, 2013; 이화림, 2001). 즉,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의 역할, 기능이 아동의 인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녀의 가치관과 심리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함께 가족 기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가족구성원과 함께 하는 가족심리치료가 중요한 중재로 등장하였다. 가족심리치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들 간의 올바른 관계형성과 상호교류에 목적을 두고 대부분의 모든 치료 과정에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가족심리치료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가족들이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백경실, 2012). 특히 아동의 경우, 자신이 가진 문제, 불만, 욕구, 감정 등을 언어화하여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저항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현은민, 2011).

이러한 언어로 진행되는 가족치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예술적 매체를 이용한 예술치료들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김혜숙, 최희정, 2009). 그 중에서 음악치료는 언어대신 음악을 사용하여 치료가 진행되는데, 다양한 음악과 악기들을 이용한 활동은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음악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감추거나 방어하기 보다는 적절한 자기표현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나경, 2011). 또한, 평소 하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경험은 내담자에게 만족감과 자신감을 주며,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내담자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긴장과 두려움을 감소시켜 준다(정현주, 2005). 가족음악치료에서의 음악은 가족의 의사소통에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도우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표현의 매개체가 되어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음악은 그 안에서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다(김종인, 2010). 실제로 이러한 음악의 강점을 사용하여 폭력적인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음악치료가 진행되어 왔다.

최애나(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치료는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자

아 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한지현(2005)은 음악치료를 시행한 결과 아동의 공격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주영(2008)은 분노조절 음악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을 때,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에 큰 영향을 주는 가족의 모습과 아동의 공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음악치료를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가 결합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 두 가지의 긍정적인 요소의 결합인 가족음악치료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선행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음악치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제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의 원인을 가족과의 잘못된 상호작용과 관계형성, 부적절한 의사소통에 있다는 가정 하에 음악의 긍정적인 기능들을 기반으로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음악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가족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공격성에서 변화를 보이는가?

2)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공격성의 변화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3)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은 가족응집력에서 변화를 보이는가?

4)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은 가족응집력의 변화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3. 용어 정의

1) 공격성 (Aggression)

공격성(Aggression)은 폭력적인 행동 등의 물리적인 형태 뿐 아니라 폭언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과 함께 잠재된 공격성까지 포함한다(최애나, 2007).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잠재된 공격성을 제외한 타인이나 사물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가해행위로 대인공격, 대물공격, 언어적 공격을 포함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의한다.

2) 가족 응집력 (Family cohesion)

가족응집력 (Family cohesion)은 가족구성원간의 심리적 유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족이 함께 밀착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임지향, 2001).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을 정서적 유대정도와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 취미

등을 포함하여 가족이 밀착되어 있는 정도로 정의한다.

3) 가족음악치료 (Family Music Therapy)

가족음악치료 (Family Music Therapy)는 가족이라는 틀을 가지고 접근한 음악치료 모델이다(김종인, 2010). 여기에서 가족은 부부관계를 기초로 형성되는 혈연공동체를 포함하여 현대사회에서 변화된 형태의 맞벌이 가족, 편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 무자녀 가족, 공동체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현지, 2005).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와 동일하게 가족을 편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미혼모 가족 등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의 공격성

1) 아동의 공격성 발달과 특성

아동의 공격성은 1세 6개월에서 2세 사이에 장난감을 차지하려는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2-3세 때는 때리고 밀치는 직접적인 공격성이 보이기 시작하며, 5-6세 때는 나를 향하는 공격이 고의로 해를 가하려 했다는 공격적 의도로 추론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박형원, 2002). 아동기인 6-13세 때는 유아기에 보였던 직접적인 공격과 신체 공격이 점차 감소하며, 사회성이 발

달함에 따라 타인에게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상징적인 공격 행동을 나타낸다(이은아, 2011).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은 아동기의 일반적인 공격성 발달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일반적인 아동의 경우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성장하면서 공격성이 감소하는 반면 공격적인 아동은 말다툼, 싸움, 괴롭힘, 욕설 등의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하며 사회성 발달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Steven & Jane, 1984/ 2002). 더불어 이러한 아동의 공격적 행동은 점점 더 의도적, 반복적, 충동적이 되고 지배적인 성향이 강한 특징을 보이며 이로 인해 또래 아동들과 올바르게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상하 관계를 맺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이경님, 2006; 최애나, 2007).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고려하는 공감능력이 부족하다(심주한, 유형근, 손현동, 2008). 이춘재와 곽금주(2000)의 연구에서는 집단폭력과 따돌림의 가해 아동들은 따돌림 피해자에 대하여 동정심이 거의 없으며, 그들의 생각이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의 공감능력 부족을 잘 말해 주며, 이는 공격적인 아동들의 원활하지 못한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부적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조윤경, 이정숙, 2011). 또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마무리가 미비하고 사고 과정에 있어서도 분석적이지 못하며,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부족함도 보인다(박성연, 고은주, 2004).

아동들의 공격성은 폭력적인 행동과 언어 뿐 아니라 과다행동, 산만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지속될 경우 비행, 도덕적 판단 결핍 등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되기도 한다(한지현, 2005). Farrington(1989)은 8세 때 공격성이 높은 아이들을 22세가 될 때까지 추적 연구한 결과, 상당수의 아동들이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아동기의 공격성이 청소년기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부터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부모와 교사가 조기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기질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로 볼 수 있다(최애나, 2007; 한윤영, 2010). 최근에는 환경적 요인들 가운데 부모와 아동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태도 문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김재철, 최지영, 2011; 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가족의 의사소통은 가족의 정서적인 결속과 융통성에 대한 능력을 발전시키고 가족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아동은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 의견, 감정을 교환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백경숙, 권용신, 2004).

사티어(A. Satir)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르면 가족의 의사소통은 크게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다. 부모와 아동간의 기능적 의사소통은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개방적인 소통을 말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아동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높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녀의 문제행동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영환, 김현지, 2001, 재인용). 반대로 부모와 아동의 의사소통 과정이 부모의 명령, 비난, 통제 등을 통해 아동에게 대화에 대한 거부감, 경계심, 두려움을 주거나 의견 교환이 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

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한다(장해순, 강태완, 2005; 허주연, 2005).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있을 경우, 아동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겪게 되며 생활의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박성연, 고은주, 2004).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부모와 갈등, 불화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가출, 도벽과 같은 문제행동의 증가도 초래할 수 있다(손지영, 김현철, 2004).

사티어(A. Satir)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비난형과 초이성형으로, 비난형의 부모는 명령적이며 자녀에게 지나친 훈육을 하여 자녀에게 두려움을 갖게 한다. 때문에 아동은 자존감이 낮으며 부모의 지나친 훈육의 영향으로 공격적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초이성형의 부모는 매우 완고하고 냉담한 자세를 취하며 독재적인 행동을 보여 자녀에게 높은 반항심과 공격성을 갖게 하고 사회성 결여, 공감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한다(정문자 외, 2012, 재인용).

아동의 공격성의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말할 수 있다. 아동은 일관적이고 친근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성격, 행동 뿐 아니라 정서와 인지 발달에도 큰 영향을 받으며(백경숙, 권용신, 2004), 또래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도 배운다(김지현, 2006). 반면,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는 아동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이나경, 2011). Patterson(1982)의 강압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비 일관적이고 거친 신체적인 훈육과 강화, 부모의 감독이 일정 수준 이하 일 때,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을 강화한다. 또한 부모가 아동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거부적 양육태도의 모습을 보일 때,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신체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며, 문제 행동과도 부적 관련성을 보인다(이혜진, 2013).

3) 공격적 아동의 치료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심리치료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공격적 아동의 치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지행동치료, 예술심리치료와 그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이 단순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아동 개인의 평가에서 나온다고 본다. 즉, 상황을 평가하고 사회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아동의 인지적 특성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박형원, 2002).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지행동기법들을 사용하여 공격적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진주희(1998)는 자기 지시법, 모델링, 문제해결 기술 훈련, 분노통제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적인 생각이 변화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아동의 공격성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만성길 외(1998)는 아동의 비순응 및 공격행동 개선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비 순응과 공격행동 등 외현적 문제들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의 미해결로 효과 유지가 단기간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진주희, 1998).

예술심리치료는 기존의 심리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더한 치료방법이다. 예술심리치료에서의 예술 활동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 충족의 표현이며 내적 갈등, 욕망 등이 구체화된 것으로 내면과 현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더불어 억압된 내적세계가 함축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강경선, 2011). 이러한 예술심리치료는 공격적 아동이 내면의 욕구와 갈등을 안전한 환경에

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내에 소개된 예술 심리치료 형태로는 음악, 미술, 무용, 시, 원예, 독서, 등 다양하며 더 세분화되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원상화, 2009).

예술심리치료 중 하나인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 아동의 분노, 적대감, 공격성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켜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점차 줄여준다(조영숙, 공마리아, 2003). 공격성이 높은 아동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결과 아동의 분노, 적대감,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였으며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들(정재원, 김갑숙 2010; 조영숙, 김동연, 2002)을 보면 미술치료가 공격적 아동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놀이치료는 놀이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며 우울 및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감정 표출에 도움을 준다. 공격성으로 또래관계가 어려운 아동에게 놀이치료를 시행한 결과 공격성 감소와 함께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최미경, 2006; 이경혜, 2001) 이 외에 문학을 통해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심지현, 2010) 무용, 동작을 이용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여운정, 김나영, 2004; 정성희, 송현주, 2012)등 공격적 아동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예술심리치료가 개발되고 있다.

4) 공격적 아동의 음악치료

아동의 공격성이 부정적 환경의 경험에 대한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해소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 아동이 공격적 행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규칙과 함께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면 공격성은 감소할 수 있다(신민섭, 김상선, 오경자, 2006). 이에 따라 음악치료는 아동이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음악을 통해 아동의 부정적인 표현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고, 노래와 악기연주로 직접적인 공격적 행동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

아동의 치료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권혜경, 진혜경, 2000).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며 노래 가사를 통해 타인의 기분을 느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공격적 아동이 올바른 자기표현과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주영, 2008).

악기 연주는 노래 활동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타악기 연주는 음악의 기교적인 측면에서 가장 단순한 음악표현이지만 악기의 질감이나 연주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강경선, 2009). 이러한 타악기는 아동들이 어렵지 않게 연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아동이 연주를 통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지현, 2005). 타인과 함께하는 즉흥적인 타악기 연주는 타인과 음악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 일치감 또는 동질감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협동심을 증가시킨다(강경선, 2009). 한지현(2005)의 연구에 따르면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는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자기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장빛나, 김수지(2009)는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활동이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격적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음악치료 형태로는 집단음악치료가 많이 사용된다. 집단음악치료는 집단 내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상호간의 지지와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제공하고, 자신의 음악적 경험과 느낌,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며 사회 기술을 발달시킨다(문지영, 이수진, 2009). 이러한 집단음악치료는 타인과의 올바른 상호작용이 어렵고 공감능력과 같은 사회화 기술이 부족한 공격적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권혜경과 진혜경(2000)은 집단음악치료에 참여한 품행장애 청소년이 대화 기술과 사회성이 향상되었고, 행동적 공격성이 감소했다는 사례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김

선영(2009)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음악치료를 시행한 결과 아동의 공격성이 감소하였고 부적응 행동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2. 가족음악치료

1) 가족음악치료의 개념과 특징

가족음악치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로 가족중심 음악치료(Family-centered Music Therapy)이다. 이 모델은 치료의 초점을 가족에 맞추어 기존의 음악치료기법과 모델을 적용시킨 것이다(Thompson, 2012). 두 번째는 ‘음악을 활용한 가족치료’로 음악활용가족치료(Family Therapy through Music)라고 하며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가족심리치료모델이다. 이것은 치료의 기반을 가족치료에 두고 음악을 보조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치료 모델이다.(김종인, 2010). 앞서 말한 두 모델들은 음악이나 가족 중 한 가지를 강조함으로써 그 의미가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중립적인 모델이 가족음악치료모델(Family Music Therapy Model, FMT)이다. 이 모델은 가족이라는 틀을 가지고 접근한 음악치료의 모델로 내담자 한 사람의 변화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구성원들까지도 변화시킴으로써 통합적, 근원적인 치료를 지향한다(김종인, 2010).

가족음악치료에서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불균형적 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가창, 감상, 연주 등의 음악활동을 치료적으로 활용한다. 가족음악치료는 집단음악심리치료가 가지는 역동성과 그룹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속감, 성취감, 책임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감과 동시에 문제가 되었던 가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이동은,

2007).

가족이 함께하는 악기연주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와 가족들의 악기 소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소리와 전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기에 가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가족구성원들과의 유대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창을 통해 서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사로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성취감과 만족감,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김효선, 선우현, 2014). 한유진과 서종미(2008)는 부모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상호작용을 위해 부모교육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을 때,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상호작용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김효선과 선우현(2014)은 가족놀이음악치료가 부모와 자녀간 관계를 증진시켰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가족음악치료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 가족음악치료의 치료 기법

가족음악치료에서는 노래심리치료, 음악극, 가족음악심리극, 가족즉흥연주 기법을 활용하여 가족 간의 지지와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노래심리치료(Song Psychotherapy)

노래는 인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언어와 감정적이고 창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의 결합으로 인간의 감정과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서종미, 2013). 이러한 특징은 가족구성원이 노래의 가사 또는 음악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내적 갈등을 노래 안에 자연스럽게 투사하고 내면 문제들을 확인,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쓰인다 (Grocke & Wigram, 2007).

치료적 노래 만들기는 노래심리치료의 기법 중 하나로, 노래의 가사, 리듬, 멜로디, 형식 등을 변형하여 인지적, 심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음악에서 말하는 작곡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포괄적 의미의 창작 활동이다(최미환, 2006). 치료 과정에서의 창작은 언어로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생각들을 노래 가사와 작곡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한다(이다은, 2010). 이 과정에서 내담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행동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고, 자기표현에 대한 보상의 산물로써 완성된 음악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장승희, 2007).

기존의 노래가사를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바꾸는 개사활동과 대상자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사로 만드는 작사 활동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내담자의 내면적인 이슈와 감정들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만들어낸 완성된 창작물 그 자체로 지지와 수용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고난영, 2008). 특히 가족 안에서 노래 만들기 경험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통찰하게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기회를 갖고,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가족이 만든 가사를 함께 부름으로써 가족의 결속력을 느낄 수 있다(최미환, 2006).

이렇듯 치료적 노래 만들기는 가족 간에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제를 작사나 멜로디 만들기 등의 창작 활동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참여하는 가족 간의 관계와 신뢰감을 형성

하도록 돕고,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지지 및 피드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가족음악심리극(Family music psychodrama)

가족음악심리극은 1970년대 후반 모레노(J. J. Moreno)에 의해 개발된 음악 사이코 드라마(Musical psychodrama)에 가족 치료적 관점을 접목시켜 새롭게 창안한 기법이다(Moreno, 1980). 가족음악심리극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족문제나 과거 어느 시점의 가족들의 경험, 가족이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상 등 심리극으로 표현될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러한 주제를 통해 가족구성원은 과거 감정을 분출하고 새로운 감정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김종인, 2010).

심리극의 과정에 따라 주제가 결정되면 치료사는 가족에게 역할을 지정해 준다. 역할에 따른 종류의 특성은 전통적인 사이코드라마와 동일하며 주인공, 보조자아, 이중자아가 극에 투입된다. 여기에서 치료사는 극을 이끌어 가는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되며 참여한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극에서 주인공은 치료 의뢰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되며 보조자아는 주로 주인공의 주변인물을 의미한다. 치료사는 필요할 때마다 보조자아를 극중에 투입시켜 상대역을 음악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중자아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또 다른 주인공으로 표현된다(김수동, 이우경, 2004).

이러한 심리극은 음악, 동작이나 노래, 악기연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악기로 할 경우, 치료사는 가족구성원들이 성격과 특성에 맞는 악기를 고르며, 적절한 위치에 있도록 도움을 준다(이동은, 2007). 가족구성원들은 악기가 정해지면 역할의 특성에 맞게 즉흥연주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두려움과 위엄의 대상은 진동이 큰 베이스드럼을, 소극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음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연주는 언어로 하기 어려운 가족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대체물인 악기와 음악으로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감과 표현의 어려움을 감소시킨다. 가족음악심리극에서 음악은 표현의 대체물 뿐 아니라 주인공을 위한 집중연주를 통해 지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경이 된 음악은 투사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김종인, 2010).

(3) 가족 즉흥연주(Family improvisation)

가족즉흥연주(Family improvisation)는 즉흥연주에 가족의 전반적인 상황을 주제로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즉흥연주를 말한다(김종인, 2010). 즉흥연주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훈련된 음악적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며 내담자와 치료사가 함께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내적 가치들을 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양지은, 2007). 가족즉흥연주에서 가족구성원들은 목소리, 악기 소리, 신체 소리 등의 음악적 매개 수단을 선택하여 치료사와 가족구성원들과 상호교류하며 즉석으로 소리를 만들어 간다. 이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 성격적 특성 또는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적인 문제를 음악에 투사시킨다. 연주 후, 가족구성원들은 만들어진 음악에 대해 토론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내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이나경, 2011).

즉흥연주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의식을 벗어난 즉흥성’에 있다. 의식을 벗어난 즉흥성이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심층적인 내용들을 의식적인 과정

없이 무의식적으로 배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내용들은 음악적 요소와 결합하게 되고 새로운 정서적 에너지를 만든다. 이를 통해 내담자들은 극도의 절정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과거의 미해결됐던 정서적 사건과 경험을 재 경험하거나 성공적이고 행복했던 경험들을 다시 불러와 경험할 수 있다(정현주, 김동민, 2010).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 D지역 아동센터와 H치료센터에서 다음의 기준에 부합한 세 가족을 선정하였다.

1.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없는 아동.
2.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점수가 20점 이상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3.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아동 중, 가족이 함께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족.

1) 사례 A

대상 아동 : 아동 A. (9세,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참여 가족 : 아동 A, 어머니

(1) 아동의 특성

아동은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동, 연필, 지우개 등 학용품을 망가뜨리는 대물 공격성을 빈번하게 보인다.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폭력을 보이지는 않으나 ‘죽여버린다’, ‘때려버리고 싶다’ 등의 거친 언어 표현을 많이 하며, 특히 형에게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최근에는 ‘싫어’, ‘안해’라는 반항적인 언어와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학교생활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2) 가정환경

현재 부모와 지적장애인 형(11세 초등학교 4학년)과 함께 살고 있다. 부모는 맞벌이 부부이며 아버지는 일로 인해 늦게 들어오거나 귀가하지 못하는 날이 많다. 어머니는 3-4년 전 알코올 중독 증세가 보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첫째 아이를 생각해서 생활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형에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아동A에게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퇴근 후에는 피곤하여 아이들과 함께 대화 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부모는 지적장애인인 큰 아이에게 모든 신경을 쏟았고, 방과 후 부모님이 없을 때에는 아동A에게 형을 부탁하기도 했다.

2) 사례 B

대상 아동 : 아동 B (9세,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참여 가족 : 아동 B, 어머니, 형

(1) 아동의 특성

아동은 학교와 센터에서 집중력이 매우 낮으며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 친구들과 놀 때에는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자주 보이며 동갑내기 친구들 보다 형들, 어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였다. 의자를 넘

어뜨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친구를 놀리거나 욕을 하는 언어적 공격성도 보였다.

(2) 가정환경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3학년 형과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아동은 하교 후부터 어머니 퇴근 전까지 지역 아동센터에서 생활을 한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보이는 애정과 관심은 컸으며, 아동B는 어머니가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은 적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아동과 형의 관계에서 아동은 형이 좋다고 하였지만 아동의 형은 동생에게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해서 싫다고 하였다.

3) 사례 C

대상 아동 : 아동 C (10세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참여 가족 : 아동 C , 어머니

(1) 아동의 특성

아동은 학교에서는 말수가 적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아동센터에서는 발로 차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많이 보이며, 친구들과 싸우는 등의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 친구들과 싸울 때는 선생님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구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 가정환경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다.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하교 후부터 어머니의 퇴근 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을 한다. 어머니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고, 그럴 경우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다. 아동은 어머니에게 학교생활이나 센터 생활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아이에 대해 센터 선생님을 통해 듣거나,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 많았다.

2. 측정 도구

1) 교사용 공격성 척도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는 Frodi, Macaulay & Thome(1977)이 공격 행동을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과 Wiggins와 Winder(1961)의 공격성 행동목록을 기초로 하여 이영애, 이준석(2002)이 아동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교사용 아동 공격성 평가는 Likert 5점 척도로 신체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대인공격 4문항과 대물공격 4문항, 언어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언어공격 4문항으로 총 12문항을 사용한다. 점수 범위는 12점에서 60점으로 나타나며 20점 이상을 받은 아동을 공격성이 높은 아동으로 분류한다. 각 영역별로 대인공격성 문항들의 신뢰도는 $\alpha = .91$, 대물공격성 문항들의 신뢰도는 $\alpha = .89$, 언어적공격성의 문항들의 신뢰도는 $\alpha = .88$ 로 나타났다(이영애, 이준석, 2002).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 로 나타났다(최애나, 2007).

2) 가족 응집력 척도

부모가 지각한 가족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기능검사(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III)를 임지향(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한다. FACES-III는 가족응집성에 대한 10문항 가족적응성에 대한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ACES-III 내용 구성 중 가족 응집성에 해당하는 10문항을 사용한다. 가족응집력은 정서적 유대, 가족지지, 가족경계, 시간/친구, 흥미/여가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가족구성원간의 심리적 유대로 가족이 함께 밀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족응집력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응집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아지는 정도에 따라 1(유리된), 2(분리된), 3(연결된), 4(매우 연결된) 단계로 분류된다. FACESIII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6$ 으로 보고되었다(임지향, 2001).

3) 내용 분석

본 연구는 척도를 통한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매 세션을 녹음하였으며, 프로그램 후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평가서와 면담을 통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무스타카스(C. Moustakas)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기간과 장소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5주간 일주일에 2회씩 40분간 10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장소는 D지역아동센터에서 2가족, H치료센터에서 1가족이 진행되었다.

2) 사전 · 사후 검사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실험 참여아동의 담당교사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 검사를 측정하고, 참여 가족의 어머니에게 가족 응집력 검사 측정 및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후 조사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하였으며,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성 검사와 가족 응집력 검사를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후 가족 음악치료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3) 프로그램 절차

10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은 <표 1>과 같이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행하였다.

<표 1>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한회기 구성

프로그램 단계	소요시간	활동 내용
도입	10분	Hello song Warming-up Program
중심 활동	20분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
마무리	10분	음악적 경험에 대한 느낌 나누기 Good Bye song

Hello song은 가족 참여자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가족들의 그날의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이름을 넣어 자신을 소개하는 가사로 개별적인 인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매 회기의 시작에 함께 부름으로서 가족 간의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인사노래에 이어 도입부에서는 음악에 맞춰 신체 동작을 나누거나 음악게임, 당일 중심활동에 사용하는 악기를 탐색할 수 있는 음악적 활동 등 간단한 위밍업을 제공하여 참여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부여하였으며, 중심활동에는 가족음악치료의 치료적 요인에 근거한 다양한 음악적 활동들을 제공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활동을 통해 각자 경험한 음악적 경험과 느낌, 생각을 함께 나눔으로서 자기경험에 대한 수용과 지지를 경험하도록 격려했으며, Good Bye song을 부르고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이와 같은 전개로 매 회기의 프로그램을 구조화 시켜 가족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음악치료 프로그램

이 연구의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은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가족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었다.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은 가족 구성원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교류, 기능적 의사소통의 방법 인지, 부정적 감정 표출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느껴보는 것을 목표로 각 음악활동의 치료적 근거에 입각해 총 10회기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가족음악치료 활동은 치료적 노래 만들기, 가사 토의하기, 악기 연주, 즉흥 연주, 음악극(Music drama), 음악 심리극(Music Psychodrama)이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1회기에서는 Hello song과 Good Bye

song을 익히는 시간을 갖고, 치료사와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교류와 친밀감이 형성 되도록 하였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사를 만들어 노래해 봄으로써 치료사가 가족구성원들의 개인적 성향과 음악적 선호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음악은 ‘고향의 봄’으로 익숙한 멜로디를 통해 가족구성원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2회기에서는 음악에 맞춰 에그셰이커 돌리기 게임을 통해 음악치료 참여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화이트의 ‘네모의 꿈’ 노래의 특정 구간에 서로의 생각을 가사로 만들어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네모의 꿈은 밧점 리듬이 주를 이루는 곡으로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며 ‘네모난’이라는 라임의 가사와 반복되는 리듬은 노래의 빠른 속지를 돕고 안정감을 주어 다양한 가사로 송라이팅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음악적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된 송라이팅 활동을 통해 가족구성원 간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며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회기에는 ‘즉흥연주의 모방은 가족구성원의 음악적 자기표현과 서로를 반영해주며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박혜영, 2014)’는 치료적 근거에 따라 구조적 즉흥연주와 리듬 모방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때 타악기를 사용하여 가족구성원들의 내재된 분노와 스트레스를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양이 춤’에 맞춰 거울놀이 활동을 통해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4회에서는 들으면 기분 좋은 말과 기분 나쁜 말을 생각해 보고 가사를 만들어 노래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른 가족구성원이 표현하는 가사를 보며 서로의 기분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5회기에서는 ‘음악극은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타인의 삶을 경험함으로써 자아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허혜진, 2010)’는 치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쏘피가 화나면 정말정말 화나면’ 음악극을 구성하였다. 음악극의 주

인공을 통해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올바른 표출에 대해서 경험하며 표현해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원들의 의견을 서로 듣고 수용하며 음악극을 만들어감으로써 가족구성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6회기에서는 음악에 맞춰 동작 지휘 활동하기로 지휘자로서의 리더 경험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가족구성원 서로를 존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활동에 사용된 다양한 오르프 타입의 악기들은 촉각, 시각, 청각의 다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폭넓은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휘 활동 후, 서로 긍정적으로 응원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회에서는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는 가족의 모습을 표현한 가사 내용을 통해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가사 토의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봄웨커 연주를 통해 가족구성원간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완성된 음악을 통해 가족에게 성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8회에서는 내가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을 서로 이야기 해 봄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인식하여 변화됨을 생각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야기하여 바꾼 가사를 대체 악기로 만들어 보고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연주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회에서는 음악치료를 한 후의 나의 감정과 기분, 변화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나 일을 가사로 만들어 보고 2회기 때 만들었던 가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또한, 이한철의 '슈퍼스타' 노래를 부르며 가족구성원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부분에서 카주 연주를 해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말과 연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회기에서는 가족이 주인공인 음악 심리극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

심리극은 설정되어진 상황에 즉흥적인 음악과 대화, 행위를 통해 표현과 의사소통을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가족들 간에 상호교류 및 적극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음악 심리극을 경험해 보고 그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과 의미 변화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구성원들과 자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고 종결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구성하였다.

4. 자료 분석

양적 자료 분석은 아동의 공격성을 파악하고자 Frodi, Macaulay & Thome(1977)의 공격 행동의 내용분류에 따라 이영애, 이준석(2002)이 보완한 교사용 아동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하여 공격성 변화의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에 참여한 어머니에게 가족 기능검사(FACES-III)중 가족응집성에 대한 문항으로 만든 가족응집력 검사를 통해 가족 응집력 변화의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질적 내용의 분석은 매 세션 녹음과 프로그램 종결 후 평가보고서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무스타카스(C. Moustaka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무스타카스(C. Moustakas)의 심리학적 현상학은 연구자의 해석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기술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해 편견을 버리고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음악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가족응집력의 변화에서 어떠한 경험을 갖게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무스타카스의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이 방법의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Creswell, 1998/ 2010).

1. 연구 문제에 현상학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결정한다.
2. 연구자는 현상학의 광범위한 철학적 가정들을 인식한다.
3. 연구자는 현상을 경험해온 개인들에게 면담, 관찰, 일지, 시, 음악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을 수집한다.
4. 경험에 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평화하고 연구자는 의미 있는 진술들로부터 나온 의미 군들을 주제로 발전시킨다.
5. 의미 있는 진술과 주제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술을 작성하는데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경험 중 음악적 경험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평화 하였고 그 안에서 의미를 도출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을 조직적, 구조적으로 기술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가족음악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참여 가족의 가족응집력 향상을 위하여 10회기 가족 음악치료를 실시하였고, 치료 전, 후에 각각의 측정도구를 통해 검사하여 점수를 비교 하였다. 세션 안에서 가족들이 경험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치료의 매 회기동안 치료과정을 녹음한 것과 대상자들이 작성한 최종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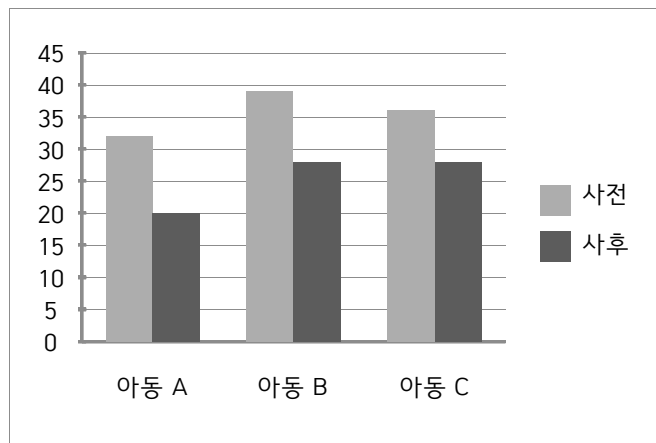
1. 아동의 공격성과 가족응집력 평가 척도 사전·사후 검사 비교 : 양적 분석

1). 아동의 공격성 사전·사후 검사 결과

<표 2> 아동의 공격성 사전·사후 검사 결과

음악치료	아동 A	아동 B	아동 C
사전	32	39	36
사후	20	28	28

본 연구에서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공격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아동의 담당 교사에게 실시한 공격성 평가 척도의 사전 사후 점수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 종료 후, 아동A는 32점에서 20점으로 12점 감소하였고, 아동B는 39점에서 28점으로 11점 감소, 아동C는 36점에서 28점으로 8점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아동의 공격성 사전·사후 검사 결과

교사용 공격성 평가척도의 하위 요인인 대물공격, 대인공격, 언어적 공격으로 분류하여 비교 하였다. 아동A의 경우 대물공격은 사전 11점에서 사후 7점으로 4점 감소하였으며 대인공격은 사전9점에서 사후 6점으로 3점 감소, 언어적 공격은 사전 12점에서 사후 7점으로 5점 감소하였다. 아동 B의 사전 사후 결과대물공격은 사전 14점에서 사후 10점으로 4점 감소, 대인공격은 사전 12점에서 사후 9점으로 3점 감소, 언어적 공격은 사전 13점에서 사후9점으로 4점 감소하였다. 아동 C의 사전 사후 결과는 대물공격 사전 10점에서 사후 8점으로 2점 감소, 대인공격 14점에서 11점으로 3점 감소 언어적 공격 12점에서 9점으로 3점 감소하였다. 아동 A, B, C 모두 공격성 하위 요인에서 2-5점의 사이의 감소를 보였으며 세 아동 모두 세 하위 요인 중 언어적 공격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참여 아동의 공격성 평가 척도의 하위요인별로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아동의 공격성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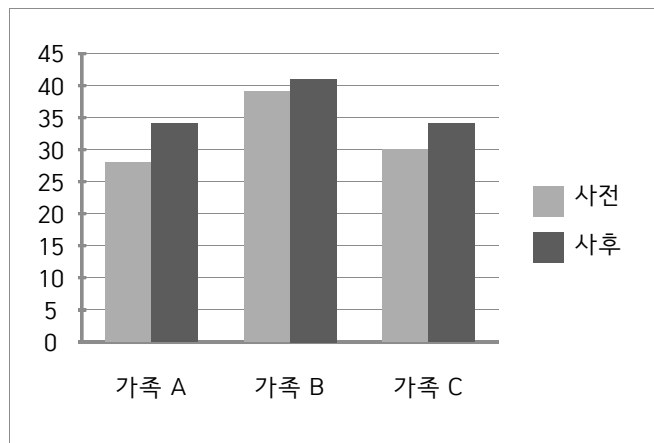
내용		아동 A		아동 B		아동 C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신체적 공격	대물공격	11	7	14	10	10	8
	대인공격	9	6	12	9	14	11
언어적 공격		12	7	13	9	12	9

2) 가족 응집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표 4> 가족응집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음악치료	가족A	가족B	가족 C
사전	28	39	30
사후	34	41	34

본 연구에서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구성원 중 어머니에게 실시한 가족 응집력 척도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표 4>과 같다. 각 가족 별사전 점수는 가족 A는 28점, 가족 B는 39점, 가족 C는 30점이었다. 음악 치료 프로그램 후, 사후 점수에서는 가족 A는 34점으로 6점 증가하였고, B는 41점으로 2점 증가, 가족 C는 34점으로 4점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족응집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2. 가족음악치료에 참여한 아동의 공격성과 가족응집력 변화에 대한 경험: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가족음악치료에 참여한 아동의 공격성 및 가족응집력 변화 경험에 대한 연구를 현상학적 연구에서 무스타카스(C. Moustakas)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공격성이 높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가 제공 되었고, 매 회기 녹음과 치료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서, 면담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공격성 변화와 관련된 54개의 의미 내용들이 선별되어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12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아동의 공격성 변화 경험 구조

범주 (경험)	주제군	주제
공격성의 변화	스트레스 감소	연주 활동을 통한 분노 감소 제재 받았던 행동에 대한 지지경험
	자기조절 능력 향상	객관적인 자기 모습 성찰 분노 조절 방법 발견 음악 신호, 규칙에 순응
	공감능력 향상	노래 가사를 통한 공감능력 연주 활동을 통한 공감능력
	새로운 자가지각	자신의 재능 발견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 재정립
	심리적 지지	연주 활동에 대한 성취감 좋아하는 음악활동에 대한 만족감 가족의 칭찬과 인정

가족응집력 변화에 대한 가족의 경험과 관련된 42개의 의미내용들이 선별되어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7개의 주제와 3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가족의 가족응집력 변화 경험

범주 (경험)	주제군	주제
가족응집력의 변화	친밀감 향상	가족에 대한 관심 확대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
	가족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지각	가족의 새로운 모습 발견 가족들에 대한 이해
	긍정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 음악적 상호작용 행동적 상호작용

1)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경험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공격성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경험의 범주에서는 ‘스트레스 감소’, ‘자기조절 능력 향상’, ‘공감능력 향상’, ‘새로운 자기지각’, ‘심리적 지지’의 5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1) 스트레스 감소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노래 부르기, 치료적 노래 만들기, 타악기 즉흥연주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 주제군에는 ‘연주활동을 통한 분노감소, 제재 받았던 행동에 대한 지지경험’이 해당 되었다.

① 연주 활동을 통한 분노 감소

아동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거나 노래로 표현함으로써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 아동 A는 음악극에서 타악기를 연주하며 화가 풀린다고 이야기 하였고, 아동B와 C는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화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사례 A.

(5회기 음악극을 만들고 악기 연주 후)

치료사 : 오늘 활동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니?

아동 A : 사실 오늘 엄청 화가 났었어요. 친구가 머리를 때리고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화도 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렇게 악기 연주 하니까 화가 풀리는거 같아요.

사례 B.

(5회기 음악극 만드는 과정)

치료사 : 우와. 북 연주가 이렇게도 크게 되는구나. 이렇게 크게 북을 친 이유가 있을까?

아동 B : 스트레스가 쌓여서요..

치료사 : 스트레스? 아 그래서 이렇게 북을 크게 연주한 거구나. 북 연주 하니까 어때? 스트레스가 좀 풀렸니?

아동 B : 네. 또 하고 싶어요.

사례 C.

(7회기 북 웨커로 연주하는 과정)

아동 C : 선생님 이거 바닥에다 쳐도 되요?

치료사 : 그럼

아동 C : (바닥에 있는 힘껏 붐웨커를 두드림) 아... 시원해

치료사 : 시원해?

아동 C : 네.. 스트레스가 풀려요. 속 시원해요.

② 제재받았던 행동에 대한 지지경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평소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재를 받았던 행동들 (무엇인가를 세게 두드리거나 발로 구르는 행동, 소리 지르기) 을 안전한 환경에서 지지를 받으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사례 A.

(3회기 북 연주)

아동 A : (말렛을 가리키며)선생님 이거 채 하나 더 있어요?

치료사 : 응. 하나 더 줄까?

아동 A : 네. 두 개 가지고 드럼처럼 쳐도 되요?

치료사 : 그럼. 괜찮아.

아동 A : 000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엄청 혼내는데.시끄럽다고

사례 B.

(3회기, 거울 놀이)

아동 B : 선생님 이거 할 때 소리 내도 되요?

치료사 : 소리? 어떻게 내고 싶은데?

아동 B :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며 이상한 소리도 냄)

치료사 :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엄마가 따라해 주실 거야

(아동 B는 제자리에서 뛰면서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동작을 하기도 함)

(7회기, 붐웨커 연주)

치료사 : (Modeling 한 후)이 악기는 이렇게 세게 쳐야 소리가 나는
악기야. 살살 치면 소리가 나지 않거나 작게 나지?

아동 B : 진짜네.. 그럼 이거 바닥에 말고 의자 위에다가 쳐도 되요?

치료사 : 그럼

아동 B : 진짜 세게 쳐도 돼요? 엄청 세게?

치료사 : 그럼. 괜찮아.

사례 C

(4회기 참 좋은 말 노래 부르기)

아동 C : (노래 부르다가 틀리거나 하면 부르지 않거나, 작게 부르는
모습 보임.)

치료사 : 00아! 노래 틀려도 되니까 크게 불러도 돼.

아동 C : 저희 합창 연습 할 때는 작게 부르라고 했는데. 틀리면 안된
다고요.

치료사 : 여기서도 괜찮아. 크게 불러도 돼! 틀려도 괜찮아.

(다시 부를 때에는 눈치를 보면서 힘들어 했지만, 세션 마지막
때에는 큰소리로 노래 부름.)

(2) 자기 조절 능력 향상

가족음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감정조절에 도

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주제군에는 ‘객관적인 자기 모습 성찰, 분노조절 방법 발견, 음악 신호, 규칙에 순응’이 해당되었다.

① 객관적인 자기 모습 성찰

아동들은 평소 자신이 해왔던 행동들과 말들을 가사로 만들어 보고 불러봄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였다. 아동들은 자신이 엄마에게 자주 하는 말을 가사로 만들어 노래할 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치료 후반부에 자신이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 A

(4회기, 아동 A 어머니가 만든 가사)

‘감사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엄마가 00에게 듣고 싶은 말

‘좋아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엄마가 00에게 듣고 싶은 말

‘밥주세요’ 이 한마디 참 싫은 말 00이 엄마에게 자주 하는 말

‘배고파요’ 이 한마디 참 싫은 말 00이 엄마에게 자주 하는 말

아동 A : 저거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엄마에게) 왜 싫어?

아동 A 어머니 : 퇴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보면 인사도 하기 전에 엄마 배고파 밥줘 하면 엄마는 짜증나더라. 00이가 예쁘게 인사하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만 보면 저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서운해

아동 A : 내가 그랬어? 그랬나..?

치료사 : 엄마 말 들으니까 어때? 정우가 엄마였다면..?

아동 A : ... 기분 안 좋았을 거 같아요.. 이제 안 그럴게..

사례 B

(8회기, 버려야 할 것을 아동 B가 만든 가사)

내가 버려야 할 것 욕심, 말대꾸, 고집

치료사 : 내가 버려야 할 것에 욕심, 말대꾸, 고집?

아동 B : 네 아까 엄마가 하는 말 들으니깐 진짜 엄마한테 말대꾸 많이 하는 거 같아서요. 그리고 형이 장난감 맨날 양보한다고 하니까.. 이제 욕심 안부릴 거예요.

사례 B

(5회기 음악극 활동, 아동 B 주인공이 되어서 느끼는 감정 악기 연주하기 - 주인공의 언니가 쏘피의 고릴라 인형을 빼앗아 놀려고 하는 장면)

치료사 : 언니가 쏘피의 인형을 빼앗았어요. 쏘피는 기분이...?

아동 B : 엄청 나빠요 !! (얼굴 표정 바뀌고 화를 냄)

(세션 마무리)

치료사 : 오늘은 쏘피가 되어 봤지? 어땠어?

아동 B : 재밌었어요. 근데 중간에 화도 좀 났어요. 장난감 뺏는 거에서..

형 : 너도 맨날 내 장난감 뺏잖아

아동 B : 내가 언제... 이제 안그럴거야.

사례 C.

(2회기 치료 활동 중 아동 C와 어머니가 함께 만든 가사)

엄마 엄마나 해 알았어. 알았다고 엄마 하면 되잖아 할 거야 알았다고

엄마 짜증나 밥 줘 배고파 내가 엄마에게 하는 말

치료사 : 가사 만든 거 보니까 어때?

아동 C : 몰랐는데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낸 거 같아요. 이제는 짜증
조금만 낼 거예요.

(3회기 인사 나누는 시간)

치료사 : 저번시간에 우리 약속 했던 것 기억나?

아동 C : 네. 짜증 조금만 내는 거요. 저 지켰어요.

어머니 : 정말 짜증을 잘 안냈어요. 어제 대뜸 나 그래도 요즘 짜증
조금만 내지? 말하더라구요

② 분노 조절 방법 발견

아동들은 치료프로그램 중 음악극과 악기연주를 하며 자신이 보였던 부정적인 감정과 표현을 보다 긍정적인 감정과 표현으로 변화시키도록 도왔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분노를 조절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제공해주었음을 보고하였다.

사례 A.

(5회 음악극 주인공이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함.)

치료사 : 그럼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 수 있을까?

아동 A :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해요. 저는 이거 (투톤 블럭) 좋아하니까 이거 연주할래요.

치료사 : 아.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면 화가 풀릴까?

아동 A : 네. 풀려요. 악기 연주하면 재밌고, 소리가 좋으니까 풀려요.

사례 B

(9회기, 카쥬 연주 후)

아동 B : 선생님 저 이거 어디서 사요?

치료사 : 왜? 그 악기가 좋니?

아동 B : 네. 소리도 재밌고, 제가 잘하니까.. 이거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이거 하면 기분 나쁜 거 없어질 거 같아요.

사례 C

(5회 음악극 후, 화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함.)

치료사 : 00이는 소피가 했던 방법들 해본 적 있어?

아동 C : 네. 물건 집어 던진 거랑 소리 지른 거.

치료사 : 그래서 화가 풀렸었어?

아동 C : 아니요.

치료사 : 그럼 어떻게 하면 화 난 게 풀릴 수 있을까?

아동 C : 드럼 치면 풀릴 거 같아요.

치료사 : 드럼?

아동 C : 여기서 북 쳤잖아요. 북 치니까 화가 풀릴 거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드럼 치면 화가 풀릴 거 같아요. 그거 엄청 멋있어요.

③ 음악 신호와 규칙에 순응

아동들은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회를 거듭할수록 음악에 집중하고 음악 신호와 규칙들을 잘 지키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초반에 나타났던 기다리지 못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중반부를 지나서는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사례 A

(1회 Hello song)

아동 A : (기분을 나타내는 카드를 떼었다 붙였다 하며 노래와 상관 없이 장난치는 모습 보임)

치료사 : 우리 빈칸에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00이 오늘 기분이 어 때 2개 골라볼까?

아동 A : (노래 중간, 자신의 기분을 말하는 부분에서 침묵함, 다른 카드로 장난함)

(5회기 Hello song)

아동 A : 저 오늘 기분은 행복하고 즐거워요. 악기연주 하니까.. 노래 빨리 해요 선생님. (노래 빈칸에 정확하게 넣어서 Hello song 부름.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 보였으며, 어머니와 선생님이 부를 때도 경청하는 모습 보임.)

사례 B.

(8회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에 북 연주)

아동 B : 버려야 할 것에는 엄청 세게. 그리고 가져야 할 것에는 이렇게(여리고 부드럽게 연주함).

치료사 : 아. 그렇게 다르게 연주 할 수도 있겠구나. 오늘은 계속해서 세게 연주 안하네?

아동 B : 네. 가사에 맞춰서 연주할거예요. 가사가 부드러우니까 연주도 부드럽게..

3회기, 활동 전, 치료사가 악기를 개념과 동시에 악기로 달려와 만지고 연주함. 치료사의 모델링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기를 만지려고 시도하였으며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임. 8회기, 활동 전, 치

료사가 악기를 꺼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집중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임.

(3) 공감능력 향상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과정에서 아동들은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공감능력 향상에는 ‘노래 가사를 통한 공감능력, 연주 활동을 통한 공감능력’으로 나타났다.

① 노래 가사를 통한 공감능력

가족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듣기 좋은 말과 싫은 말을 송라이팅 하는 활동과 ‘가족’ 노래를 부르며 가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 시간을 통해 타인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타인의 말과 행동을 경청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 A.

(4회기 치료 과정에서 만든 가사 내용)

아동 A : 야 바보야 이 한마디 참 싫은 말 아동A가 친구에게 들었던 말. 야 바보야 이 한마디 참 싫은 말 내가 친구들에게 듣기 싫은 말

치료사 : 이렇게 가사 바꾸어서 불러 보니까 어때?

아동 A : 기분이 나빠요. 야 이 바보야 하면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싶어요

치료사 : 그렇구나. 그럼 아동A는 이 말을 다른 친구에게 해본 적 있어?

아동 A : 있어요....

치료사 : 있구나.. 그 친구는 어땠을까?

아동 A : 음... 기분 나빴을 거 같아요.

사례 B

(7회기 , ‘가족’ 가사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치료사 : 00이는 어떤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

아동 B 형 : ‘내가 어디 있든 어딜 가든 걱정하고 기도하는 날 지켜 준 큰 사랑이죠 ’ 이 부분이요. 엄마가 저희 걱정하고 사랑 해주니까요.

치료사 : 00이는?

아동 B : 저도 형이랑 똑같아요. 원래는 다른 부분 이었는데 형 말 들 으니까 진짜 거기가 좋은 거 같아요.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 하는 것도 생각났어요.

사례 C

(프로그램 종료 후 면담 내용)

아동 C : 가족 노래가 좋았어요. 엄마랑 같이 부를 수 있어서 좋았 고.. 가사도 너무 좋았어요. 뒤에 부르는 데는 자랑 생각이 똑같았어요.

② 연주 활동을 통한 공감능력

아동들은 악기 연주를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과 공감능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아동 A는 모방 악기 연주를 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연주를 집중하여 듣지 않을 때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도 그럴 것 같다고 말하였다. 아동 B는 연주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초반 배려하지 않고

많이 다투던 형과의 사이가 후반에 좋아진 모습을 보였다.

사례 A.

(3회기 즉흥연주 모방 활동)

아동 A : 엄마 왜 안 따라 해? 나처럼 크게 해야지.

어머니 :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아동 A : 아, 왜. 나랑 다르잖아.

(처음 어머니가 아동의 연주를 따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동 A는 어머니에게 자신과 똑같이 해줄 것을 요구하며, 후에 역할을 바꿨을 때에는 집중해서 어머니를 모방하여 연주하였다.)

(활동 후)

치료사 : 오늘 00이가 정말 열심히 한 거 같아. 엄마랑 진짜 똑같이 연주 하던데?

아동 A : 네. 제가 연주 안 해주면 엄마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사례 B.

(6회기 치료과정)

치료사 : 오늘 하는 활동에서는 지휘자도 아주 중요하지만 악기를 연주해 주는 연주자도 아주 중요해. 연주자가 지휘자를 보지 않으면 멋진 연주가 가능할까?

아동 B : 아니요. 저 똑같이 따라 할 거예요.

- 집중해서 지휘를 보고 정확히 연주하는 아동 B

(활동 끝난 후)

아동 B: 제가 지휘자를 했을 때 재밌었어요. 근데 형이 처음에 자꾸

안보고 다르게 연주하니깐. 싫었는데 다음에는 다 내 지휘에 맞춰서 연주해 주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형이 지휘할 때도 형 보고 열심히 했어요. 형 기분 좋으라고.

(4) 새로운 자기 지각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은 아동의 새로운 자기지각을 통해 공격성 변화된 것을 경험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이 경험한 아동의 새로운 자기 지각에는 ‘아동의 재능 발견, 가족 안에서 아동의 역할 재정립’이 해당 되었다.

① 아동의 재능 발견

아동 자신과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음악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재능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A는 기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으며, 아동 A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동 B와 C 역시 음악에 대한 높은 집중력을 보였고, 가사를 만들거나 악기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 때 완성도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였다.

아동 A : 저는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노래해야 할 때 엄청 작게 불렀는데요. 선생님이랑 엄마가 노래 잘한다고 해주고 칭찬 해 줘서.. 지금은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앞으로 다른 것도 해 보고 싶어요.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동 A 어머니 : 아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음악에 집중도 하고.. 박자도 잘 맞춰서 잘 하더라구요~ 전에 피아노 학원 보냈을 때는

안 가려고 해서 전혀 끼가 없나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노래도 곧 잘 하고.. 이번에 하는 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아동 B : 음악시간 좋아요..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못할 거 같아서 하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잘한다고 하니깐..재밌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이 준 카쥬 붙어줬는데, 잘한대요.

아동 C 어머니 : 아이가 노래를 잘 하더라구요. 목소리도 좋고.. 요즘에 여기서 합창대회 나간다고 연습하는데 고학년 애들 위주로 하는 거 같은데 여기 선생님께서 00이가 잘해서 같이 하게 됐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같이 음악하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잘 하더라구요. 본인도 좋아하구요.

② 가족 안에서 아동의 역할 재정립

가족구성원들은 아동이 가족 안에서 새롭게 인식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은 항상 문제가 되었던 아동의 적극적인 모습과 아동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활동과 가족이 불러주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노래는 아동 자신에 기대를 높이고 희망을 갖도록 도왔다.

아동 A 어머니 : 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 나가면 언제부턴가 애한테 형 챙기라고 얘기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뭐..저도 애는 제가 좀 기댈 수 있는 애가 됐으면 했는데 형

보다 더 속 썩어죽아요.. 예전에 저 없을 때 형을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나봐요. 근데 이제는 지 형 밥도 챙겨주고 사랑한다고도 얘기 자주 해주고.. 00 때문에 많이 웃어요.

아동 B 어머니 : 아이가 음악치료 하고 나서 의젓해졌어요. 항상 막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애교도 많고 투정도 잘 부리고 지 형 괴롭히고.. 근데 여기서 그 지휘자 하는 거 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도 한동안 그 얘기 자주하고.. 이제는 지가 형도 챙기고 저도 걱정해 주고 그래요. 무거운 거 있으면 자기가 든다고 하고..

아동 B 형 : 동생은 맨날 저한테 형이니까 양보하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화도 나고 동생이 미울 때도 있었는데, 음악치료 시간에 저한테 맞춰주고 악기도 양보해 줘서 동생이 조금 좋아졌어요.

아동 C : ‘가족’ 노래 부를 때 좋았어요. 엄마가 그 노래 부르면서 제가 힘이 들 때마다 버팀목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힘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니깐 좋았어요.

(5) 심리적 지지

아동이 경험한 심리적 지지는 ‘연주 활동에 대한 성취감, 좋아하는 음악활

동에 대한 만족감, 가족의 칭찬과 인정'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연주 활동에 대한 성취감

아동들은 악기 연주를 통해 음악을 완성하고 그 결과물으로써 성취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C는 활동 초반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3회 프로그램 후 자신감이 향상된 모습을 모습과 모든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 A와 C는 치료사의 반주 없이 가족구성원들이 북웨커로 화음을 만들어 음악을 완성한 활동에서, 아동 B는 카쥬 연주 활동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아동 A : 저랑 엄마랑 긴 막대기(북웨커)로 연주하고 노래 불렀던 게 좋았어요. 선생님 없이 노래가 완성 되서 좋았어요. 또 엄마랑 같이 해서 좋았어요.

아동 B : 선생님이 주신 카쥬 좋아요. 소리도 재밌고 신기해요. 그리고 그거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 다 연주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동 C : 엄마랑 북웨커 할 때 재밌었어요. 둘이 같이 쳤을 때 화음 만들어 지는게 신기했고 선생님 반주 없이 엄마랑 저랑 북웨커만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 불렀을 때 뿌듯했어요.

② 좋아하는 음악활동에 대한 만족감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부르는 활동에서 큰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초반 소극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참여하던 아동들은 프로그램 중반을 지나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더 불렀

으면 좋겠다' '다른 노래들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와 같이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 A : 네모의 꿈 노래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들으면 재밌고 기분도 좋아지고 화났던 것도 풀려요. 계속 부르고 싶어요

사례 B.

(6회기 활동 후)

아동 B : 선생님 이거 또 하면 안돼요? 재밌어요. 저 한번만 더 할래요. (활동 마무리 하면서)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오늘처럼 악기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사례 C.

(4회기, 참 좋은 말)

아동 C : 선생님 이 노래 한 번만 더 불러보면 안돼요? 이거 한 번 더 부르고 악기 해요.

치료사 : 그래. 이 노래 마음에 들어?

아동 C : 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③ 가족의 칭찬과 인정

아동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 지지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아동 A : 엄마가 저 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랑 기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알았다고 했어요.

아동 B : 엄마랑 형이 제 지휘를 보고 연주해 줄 때, 기분이 좋았어

요. 저만 보고 연주해 주고.. 엄마랑 형이 저한테 잘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사례 C

(활동 10회 마무리 하면서)

아동 C 어머니 : 엄마가 평소에 관심 많이 못 가져 줘서 미안하고.. 우리 00이가 이렇게 잘하는 몰랐네.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끝까지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엄마 아들로 태어나 줘서 고마워.

아동 C : (옆드려서 울음.)

2) 가족응집력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경험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의 가족응집력의 구체적인 변화의 경험은 ‘친밀감 향상’, ‘가족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지각’, 가족구성원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3가지 주제군으로 나타났다.

(1) 친밀감 향상

가족구성원들의 친밀감 향상에서는 ‘가족에 대한 관심 확대,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가족에 대한 관심 확대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아동 A,B,C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친구와의 관계,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 하였으며, 아동들은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예전보다 관심이 많아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아동 A 어머니 : 음악치료 하면서 아동 A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형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써주고, 저도 피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없어 진거 같아요. 많이 미안하죠.. 그래도 요즘에는 오늘은 뭐했는지 기분은 어떤지는 자주 물어보려고 해요.

아동 B 어머니 : 저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애들이랑 친하고 신경도 많이 써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맨 처음에 애들이 좋아 하는거 생각해서 맞춰 보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 조금 놀랐어요. 저는 대부분 다 맞힐 줄 알았는데 못맞췄던 것도 놀랐지만, 애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모르더라구요. 애들이 저에 대해서 쓴 게 많이 달랐다는게... 저 혼자 짝사랑 한건 가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나쳤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더 보이는 거 같더라구요.

아동 C 어머니 : 아들 하나이다 보니까.. 신경 써줘야지 하면서도 회사 생활이 바빠서 할머니에게 많이 맡겼거든요. 사실 이것도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하지 말까 하기도 했는데 애가 너무 좋아해서 한거거든요... 잘한거 같아요. 이거 하니까 애랑도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누구랑 친한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으니까.. 저도 관심이 많이 생긴거 같아요.

②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족들과의 대화시간이 많아졌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음을 보고하였다. 아동 B의 모는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 시간 외에 주말, 공휴일에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아이들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일과 시간이 많아졌으며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아동 B 어머니 : 전에 음악치료 시간에 아이들이 놀러 가자고 했었잖아요. 수족관으로.. 저번 주에 다녀왔어요.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은데 아이들은 항상 싫다고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논다고.. 그런데 이번에 아이들이 먼저 놀러가자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가서 너무 재밌게 놀고 왔구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재밌다는 걸 알게 된 거 같아서 좋아요.

아동 C 어머니 : 평소에 제가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랑 함께 이야기 할 시간이 없었어요. 또,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하고.. 그런데 음악치료 하면서부터는 끝나고 집에 갈 때에 대화를 조금씩 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지금은 처음보다 더 많이 생겼구요. 아이랑 둘이다 보니까.. 같이 얘기 하게 된 게 참 좋은 거 같아요.

(2) 가족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지각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가족의 새로운 모습 발견,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이해’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가족의 새로운 모습 발견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참여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가족 개개인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송라이팅 한 활동은 가족들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하며 감정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노래 부르기, 다양한 악기 활동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었다.

아동 A 어머니 : 아이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점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자신을 소개하는 활동 했을 때, 제가 적은 것과 아이가 적은 게 대부분이 달라서 조금 놀랐어요. 저는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컸나 싶기도 하고..

아동 B 어머니 : 아이가 노래 부르고 악기연주 할 때, 깜짝깜짝 자주 놀랐어요. 평소에 아이가 제 앞에서 노래 부르는 일이 없잖아요. 이런 악기 연주하는 시간은 더 없구요. 그런데 생각보다 노래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더라구요. 매일 산만하다고 집중하라고 혼내기도 했는데.. 지휘할 때나 악기 연주 할 때 보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하고... 제가 알고 있었던 아이

의 모습이 아니어서 조금 놀랐어요.

아동 C 어머니 : 아이가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음악치료 시간을 많이 좋아하고 기다려요. 맨날 센터에서는 공부 안 한다고, 친구들이랑 싸운다고 뭐 잘 못했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아이가 음악치료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②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이해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구성원들은 평소에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이고 걱정이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동 A 어머니 : 거울 놀이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때.. (3회기 : 어머니가 아이의 거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따라하다가 힘들다고 눈을 감고 멈췄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보고 동작 표현을 했음. 나중에 어머니가 보시고 다시 거울놀이를 시작함)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가 나를 많이 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 했어요

아동 B : 형이 막 저 때리고 하는 거 진짜 싫었는데.. 난 잘못된 거 없는데 자꾸 때리고 못살게 해서.. 근데 저번에 엄마가 형한테 북저한테 주라고 하니깐 형이 싫다고 하면서 막 화내는 거 보니까 미안했어요.

아동 C 어머니 : 아이가 요즘 애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 말로는
과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걱정했거든요. 저 모르는 무슨 문제
가 있나.. 원래 어려서 눈물도 많고 한 앤데.. 근데 이렇게 같
이 하면서 얘기도 해보고 하니깐 외로웠나 보더라구요. 저도 자
주 바쁘고 해서 신경도 많이 못써주고.. 외동이다 보니까.. 평
소에 문제 있다고 선생님한테 연락 오면 많이 혼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이해하고 얘기도 하고 해야겠어요. 잘 될지 모르겠지
만요..

(3) 가족구성원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가족구성원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에는 ‘언어적 상호작용, 음악적 상호작용,
행동적 상호작용’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언어적 상호작용

가족구성원들은 매시간 치료 프로그램 전, 오늘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표
현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구성원들과의 언어적인 소통이 많아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사로 만들어 노래하는 송라이팅 활동을 통
해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아동 A 어머니 : 음악치료 하면서 제일 달라진 게 기분 물어 보는 거
예요. 원래 예전에는 전혀 그런거 없었는데.. 기분을 물어볼
일이 뭐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녁에 퇴근하면 자연
스럽게 오늘 기분 물어보고 오늘 뭐했는지, 학교에서 무슨일

있었는지 물어보고 얘기해요. 뭐 애들이야 아직까지도 자세
히 얘기하는 건 귀찮아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
했죠.

사례 B.

(8회기, 내가 가져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아동 B가 만든 가사)

내가 가져야 할 것 엄마, 형, 나

치료사 : 우와. 가사 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는데? 내가 가져야 할 것
은 왜 엄마랑 형이랑 나야?

아동 B : 엄마랑 형이랑 나랑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엄마랑 형이랑 나
랑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종료 후, 면담 내용)

아동 B 어머니 : 아이들이 제가 버렸으면 좋겠고, 가졌으면 좋겠는 걸
이야기했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이 엄마는 화를 버
렸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재밌어서 웃기도 했지만 아이들
이 내가 화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했어
요. 고쳐야 되겠다 생각했죠.

아동 C : 엄마가 예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다고 빨리 자고 그랬
는데 이제는 조금 일찍 오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는거 같아
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고.

② 음악적 상호작용

가족구성원들은 다양한 노래와 연주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가 먼저 악기 연주를 하면 자연스럽게 맞춰서 연주하

는 모습을 보였으며 노래, 악기 연주할 때 추임새를 넣는 모습도 보였다.

사례 A

(3회기, 악기 모방 활동)

아동A와 어머니는 처음 리듬을 모방할 때, 너무 길게 리듬을 제시하거나 시간을 두지 않고 혼자 연주하여 활동이 어려웠음. 하지만 5~10분이 지나면서 갈수록 어머니가 집중하여 아동의 리듬을 모방하기 시작했고, 아동도 어머니를 인식하고 리듬을 제시하고 기다렸음.

사례 B

(9회기, 네모의 꿈 악기 연주 활동)

아동 B: 형이 이거 골랐으니까. 난 이걸로. (형이 북을 선택, 아동 A는 카바사 선택)

(아동 B 연주 할 때, 형의 연주를 듣고 맞춰 연주하는 모습을 보임.)

(활동 마무리 후)

아동 B 어머니 : 아까 다같이 악기 연주하면서 음악 만들 때, 00이가 저도 보고 지 형을 보고 맞춰서 연주하네요. 맨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보고 맞추기도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기특해요.

사례 C.

(9 회기 슈퍼스타)

어머니가 슈퍼스타 노래를 부르자 아동C는 처음에 듣고 카쥬를 후렴부분에 같이 연주하기 시작. 어머니에게 이 부분에서 카바사를 연주하라고 제시하기도 하였음.

③ 행동적 상호작용

가족구성원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행동을 모방하여 표현하는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로 안아주거나 손잡기 등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 후 가족구성원들의 면담에서도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아동 A 어머니 : 요즘은 집에 있을 때 제 무릎에 앉으려고 하거나 안아달라고 얘기를 자주 하더라구요. 전에도 가끔 그러긴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제 무릎에 앉아서 악기 연주하고 안아주고 했던 게 좋았었나봐요.

아동 C 어머니 : 음악치료를 하면서 아이의 눈을 그렇게 오래 바라보고 있었던 건 처음인거 같아요. 오로지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처음이었던 것 같구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에게 집중 하는데 울컥 했어요. 신경을 많이 못써줬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 후에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려고 해요 아이랑 눈 마주치고 이야기 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노력하구요.. 덕분에 아이의 새로운 습관이나 모습을 알 수 있었고 더 가까워 진거 같아요.

아동 C 어머니 : 음악치료 끝나고 나면 손잡고 집에 가거든요. 슈퍼에 들러서 간식도 사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애랑 손잡고 오늘 노래 잘하더라 칭찬도 해주기도 하구요. 애도 좋아하는거 같아요. 예전에 손잡으면 손 빠고 그랬는데 이제는 빠지는 않네요.

V. 결 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음악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가족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연구자는 아동의 높은 공격성의 원인을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와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로 두고 가족음악치료의 기법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음악치료는 아동의 공격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여 아동들의 담당교사에게 아동의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전과 후에 실시한 교사용 공격성 척도(이영애, 이준석, 2002) 검사에서 세 아동 모두 공격성 감소를 보였다. 질적 분석에서는 아동의 공격성 변화 경험으로 스트레스 감소, 자기조절 능력 향상, 공감능력 향상, 새로운 자기지각, 심리적 지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음악치료는 가족응집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상가족의 어머니에게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전, 후에 실시한 가족 응집력 검사(FACE-III)에서 세 가족 모두 가족응집력 점수가 향상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 변화 경험으로 친밀감 형성, 가족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지각,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 번째 양적분석과 더불어 양적분석 과정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 경험을 질적으로도 접근하였다는 것에 있다. 가족응집력은 양적 분석 결과에서 낮은 증가를 보였지만 질적 내용 분석에서 가족들의 구체적인 변화 경험에 대한 내용을 통해 가족음악치료 프

로그램이 가족응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두 번째, 음악치료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표현의 매개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에서는 아동들의 높은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보편적인 치료방법이 되었던 인지 행동치료나 상담의 경우 언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짐으로 인지적, 언어적 측면을 강조하기 쉬웠다. 하지만 정서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며 언어에 대한 표현의 제약을 받는 아동들에게는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치료에서 음악의 사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정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에 도움을 주었으며, 아동이 표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가족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었다.

세 번째, 아동의 공격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가족이 함께 하는 치료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치료의 효과성을 밝혔으며 그 변화 경험에 대해 밝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가족응집력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음악치료에서의 아동의 변화 경험과 가족의 변화 경험은 공격적 아동과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음악치료의 활동영역과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제언

본 연구는 가족음악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와 가족응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치료 현장에서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관련된 중재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가족의 수가 적어 모든 공격성 아동의 가족들에게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과 비교 대상 없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성을 보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가족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있어서 치료의 기간이 짧아 가족의 문제를 통찰하고 다양하게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으며,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의 차이점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더 많은 대상가족에게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가족응집력 향상을 위한 장기간 계획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들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에는 치료사와의 지속적인 관계형성과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공격성과 더불어 가족들은 가족응집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격성 아동이 속해있는 각 가족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치료적 효과를 검증할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프로그램은 가족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의사소통 외 다른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는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부족하였다. 의사소통 외의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한다면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가족들과 그로 인한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선. (2009). 표현예술치료로서 사물놀이의 활용방안 연구. **인문과학연구**, 23, 453-470
- 강경선. (2011). 승화로서 예술의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예술심리치료연구**, 7(3), 21-37.
- 고난영. (2008).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통한 뇌졸중 성인의 장애수용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미영. (1998).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6, 51-75.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전국 학교 폭력 실태조사연구**. 서울: (재)푸른나무청예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로부터 2014년 8월 6일 검색.
- 권혜경, 진혜경. (2000). 품행장애 청소년의 음악치료 사례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1(1), 110-123.
- 김귀연. (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 표상의 인과 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선영. (2009). 집단음악치료가 방과후교실 아동의 공격성과 정서적 부정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즉흥연주와 난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동, 이우경. (2004).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은임. (2011).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인. (2010). **가족음악치료학: 음악 원형을 통한 개인과 가족의 심성 변화**. 서울: 이담 Books.
-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김지현.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 최희정. (2009). 가족미술치료가 지적장애청소년 가족의 가족기능 향상에 관한 사례연구 : 응집성과 적응성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33-56.
- 김효선, 선우현. (2014). 가족놀이음악치료를 통한 부모- 자녀관계 증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65-92.
- 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99-213.
- 만성길, 오경자, 고려원, 박중규. (1998). 아동의 비순응 및 공격행동 개선을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2), 1-15
- 문지영, 이수진. (2009). 자기성장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이 발달장애아동 양육자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6(1), 25-42
- 박성연, 고은주. (2004). 보육경험과 아동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23-35.
- 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공격성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1-24.
- 박형원. (2002). 공격적인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접근의 교육적 활용. 연세

교육연구, 15(1), 37-54.

- 박혜영. (2014). 기악즉흥연주를 적용한 부모-자녀 관계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 정서 행동장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경숙, 권용신. (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백경실. (2012). 음악심리치료가 모-자 의사소통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경실. (2004). 사이코드라마적인 음악치료가 부부의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6(2), 18-37.
- 서종미. (2013).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환재.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폭력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지영, 김현철. (2004).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아동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331-358.
- 신민섭, 김상선, 오경자. (2006).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6(2), 145-161.
- 심승원. (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주한, 유형근, 손현동. (2008). 초등학생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과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차이 분석. **열린교육연구**, 16(2), 67-90.
- 심지현. (2010). 문학치료를 통한 빈곤아동의 공격성 해소. **독서교육연구**, 5, 1-38.

안전행정부. (2014).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측정조사**.

<http://www.mospa.go.kr/>로부터 2014년 8월6일 검색.

여운정, 김나영. (2004). 초등학교 여아의 공격행동 감소를 위한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4(2), 105-117.

연합뉴스. (2013, 6, 17). **학교폭력 신고 건수 추이**.

<http://www.yonhapnews.co.kr/>로부터 2014년 6월 20일 검색.

오상규. (2006).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지은. (2007). 그룹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4(1), 1-20.

원상화. (2009). 독일예술심리치료의 발전 동향과 한국예술심리치료 발전을 위한 제언. **예술심리치료연구**, 5(1), 1-21.

이경남. (2006). 아동의 개인, 가족변인 및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31-44.

이경혜. (2001). 사회 변화와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건강학회지**, 4(2), 43-55.

이나경. (2011).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치료적 음악 만들기 사례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8(2), 21-46.

이다은. (2010). 중도시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은. (2007). 심리치료 이론과 음악치료의 적용.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애. (2002). 집단미술요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애, 이준석. (2002). 아동 공격성 검사지의 타당도 연구, **교육학논총**, 22(2), 143-160
- 이영환, 김현지. (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신뢰감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8(1), 103-119.
- 이은아. (2011).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영. (2008). 방임된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 감소를 위한 분노조절 음악 프로그램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5(2), 17-40.
- 이복실. (2007). 중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공격성, 학교 폭력경험 및 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13, 25-50.
- 이춘재, 광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문당.
- 이현지. (2005). 한국사회의 가족문화의 실태와 새로운 가족문화에 대한 모색. **한국학논집**, 32, 421-451.
- 이혜진.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자아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화림. (2001). 부모양육태도와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향. (2001). 정신지체아 부모가 지각한 가족기능과 일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승희. (2007).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이 청소년의 열등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해순, 강태완. (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

- 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2), 104-130.
- 장빛나, 김수지. (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12).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성희, 송현주. (2012).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2(2), 125-147.
- 정재원, 김갑숙. (2010).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 연구**, 17(5), 1125-1142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미환. (2006). 노래심리치료. 정현주(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pp235-266). 서울: 학지사.
- 정현주, 김동민. (2010).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조영숙, 공마리아. (2003). 반항성 장애아동의 공격적 행동 감소를 위한 미술 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0(2), 321-344
- 조영숙, 김동연. (2002). 미술치료가 반항성 장애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술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9, 97-110
- 조윤경, 이정숙. (2011). 집단심리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6(2), 99-123.
- 조정은. (2010). 연구논문: 악기연주 활동을 통한 시설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7(7), 77-99.
- 진주희. (1998). 공격적인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 15회기 프로그램과 25회기 프로그램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은선, 김택호. (2013). 집단음악치료가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의 자기통제,

- 사회성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1), 79-91.
- 최은아. (2012). 핸드벨, 핸드차임, 북웨커를 활용한 기악지도방안: 초등학교 5, 6학년 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16(1), 325-346.
- 최미경. (2006). 공격성으로 인해 또래관계가 어려운 아동의 개인 및 집단 놀이치료 사례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1), 121-132
- 최애나. (2007). 음악치료가 소득계층별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유진, 서종미. (2008). 부모교육으로서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여성가족생활연구**, 12, 167-189.
- 한윤영. (2010). 초등학교 남, 녀 아동의 기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현. (2005). 공격성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타악기 연주활동 중심의 사례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2), 33-56.
- 허주연. (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가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민. (2011).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자가족 미술치료 사례. **미술치료학회**, 18(2), 367-386.
- 허혜진. (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창작 음악극 프로그램 효과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7(1), 43-69.
- Brusia, K. E. (2006). *The Dynamic of Music Psychotherapy*. 최병철, 김영신 (역). **음악심리치료의 역동성**.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8).
- Creswell, J. W. (2010).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ed). 정선욱, 김진숙, 조홍식 (역) **질적연구 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2판).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8).

- Eron, L. D. (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The American Psychologist*, 42(5), 435-442.
- Farrington, D. P. (1989).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4(2), 79-100.
- Frodi, A. ,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 Grouke, D. & Wigram, T. (2007). *Receptive Methods in Music Therapy : Techniqu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or Music Therapy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Philadelphia, P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Thompson. G. (2012). Family-Centered Music Therapy in the home environment: Promoting interpersonal engagement between children with Austin spectrum disorder and their parents. *Music Therapy Perspectives*, 30(2), 109-116.
- McIntyre, J. (2009). Interactive Family Music Therapy: Untangling the System.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30(4). 260-268.
- Moreno, J. J. (1980). Musical Psychodrama: A New Direction in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17(1), 34-43.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CES III)*.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Orpinas, p. & Framkowski, R.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in young adul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OR: Castalia Publishing Co.

Steven, J. A. & Jane C. C. (2002). Childhood behavior disorders and emotional disturbance. 강위영, 윤점룡(역). *정서장애아교육*.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사(원서출판 1984).

Wheeler, B. L. (2004). Music therapy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spectives. 정현주(역). *음악치료연구*. 서울:학지사(원서출판 1995).

Wiggins, J. S. & Winder, C. L. (1961). The peer nomination inventory: an empirically derived sociometric measure of adjustment in preadolescent boys. *Psychological Reports*, 643-677.

ABSTRACT

The Effect of Family Music Therapy on Dealing with Aggression and Family Cohe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o, Kyoung-Hee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music therapy on the levels of aggression and degrees of family cohesion experienc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target for this study includes 3 families with children who had aggression evaluation scale scores of over 20 points. The children came from D area child center and H treatment center in Anyang, Gyeonggi-do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ith their whole families. The music therapy program was carried out for 40 minutes each time, twice a week, for a total of 10 times from October 6, 2014 to November 8, 2014.

For the sake of quantitative research, the results between the prior investigation and post investigation were compared using the evaluation

scale of child aggression and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Also, for the sake of qualitative research, the amount of change in the aggression of a child and the degrees of change in family cohesion were analyzed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after each recording and program session. The surveys and interviews followed the Moustakas analysis procedure among phenomenological methods.

The results of quantitativ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ll 3 children who showed high aggression indicated a reduced aggression level. Child A showed a 12-point reduction from 32-points to 20-points, Child B showed an 11-point reduction from 39-points to 28-points, and Child C showed an 8-point reduction from 36-points to 28-points. Second, all 3 familie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showed improvement i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increased from 28-points to 34-points, a difference of 6-points in the case of Family A, from 39-points to 41-points, a difference of 2-points, in the case of Family B, and from 30-points to 34-points, a difference of 4-points in the case of Family C.

The results of qualitativ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experience of specific change in the aggression which a child experienced, the child experienced reduced stress, improved self control, improved empathy, new self-perception and psychological support. Second, for the experience of change in family cohesion, family members experienced improved sense of closeness, new perception of family members and positive interactions. This result shows that family music therapy could be an effective mediation measure for reducing the aggression of children and improving family cohesion.

<부록 1> 회기별 가족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	주제 및 목표	내용	치료적 근거
1	오리엔테이션 & 치료사와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는 세션에 앞서 자기소개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다. - 치료사는 앞으로 세션에 사용될 Hello song과 Good Bye song을 소개하고 가족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p>Hello song에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에 감정 카드를 골라서 붙이고 소개 노래를 불러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노래의 빈칸에 넣어 노래한다.(< 고향의 봄 멜로디에 개사한 노래) 내가 소개하고 싶은 항목을 정한 뒤, 내가 좋아하는 것과 가족이 좋아할 것 같은 것을 함께 적는다. 돌아가면서 가사를 넣어 노래를 부르고, 다른 가족들이 넣은 가사와 내가 적은 가사가 일치했는지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노래를 함께 만들어 부르는 활동은 치료사와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교류와 친밀감 형성을 돕는다(차은선, 김택호, 2013). - 익숙한 멜로디는 가족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고 부담감을 줄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신을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치료사는 가족들의 개인적 성향과 음악선호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	기능적 의사소통 방법 알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는 에그 웨이커 약기를 소개한다. '나비야 or 풍당풍당' 노래에 맞춰 에그 웨이커 돌리기 게임을 한다. - 화이트의 '네모의 꿈' 노래를 익힌다. 치료사는 노래의 선율에 치료사의 가족의 모습을 가사로 만들어 Modeling 해준다. 가족들은 각자 서로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을 가사로 만들어서 불러본다. 서로 만든 가사를 보며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들을 서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노래를 사용한 활동은 안정감을 주어 활동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네모의 꿈'은 붓점 리듬은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며, '네모난' 이라는 라임의 가사와 반복되는 리듬은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다양한 가사로 송라이팅을 할 수 있다. - 서로의 생각을 가사로 만들어 노래하는 것은 가족 간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이야기 해 본다. 특히 서로 상처가 됐거나 힘들었던 말들이 있었다면 이야기 나누어 본다.	있다. 또한,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도록 이끌 수 있다.
3	기능적 의사소통 방법 알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을 제시하고 모방할 수 있는 구조적 노래(‘리듬에 맞춰’)에 맞춰 가족구성원은 돌아가면서 자신의 리듬을 즉흥연주하고 그 리듬을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모방해 본다. 악기는 타악기를 사용하며 타악기 연주 속에서 다이내믹과 템포를 느끼며 스트레스를 표출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느껴본다. - ‘고양이 춤’ 음악에 맞춰 가족구성원은 서로 마주보고 서로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 주는 ‘거울놀이’를 해본다. 표정, 몸짓 등을 그대로 따라하며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의 장조 및 다양한 화성의 반주와 리듬연주는 가족의 4박 리듬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즉흥연주의 모방은 가족 구성원이 음악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를 반영해주며 적극적인 음악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박혜영, 2014). - 타악기 연주는 수용 가능한 표현 방식의 일환으로 분노를 연주하는 것을 통해 하나의 배출 수단을 만들어 주어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 (한지연, 2005).
4	기능적 의사소통 방법 알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요 ‘참 좋은 말’을 익히고 가사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본다. ‘사랑해요’라는 가사 대신 들으면 가장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하고 빈칸 채우기를 해본다. 또 언제 그 말을 듣고 싶은지, 누구에게 듣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 송라이팅 해본다. 반대로 들으면 기분 나쁜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 같은 방식으로 빈칸 채우기와 송라이팅을 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를 이야기 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은 가족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조정은, 2010). - 다른 가족구성원이 말하는 기분 좋은 말과 기분 나쁜 말을 듣고 노래함으로써 서로의 기분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 ‘참 좋은 말’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표현 한 가사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는 ‘쏘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동화를 어머니에게 읽어 주게 한 후, 동화 속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 후, 가족과 함께 화가 났을 때의 나의 모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극은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등장인물에게 동화되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5	부정적 감정 표출 (감정 다스리기)	화를 푸는 방법을 이야기 나누어 본다.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oo이 화나면 정말정말 화나면' 이란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이야기에서의 내용을 음악극으로 만들어 본다. 가족들이 상의해서 악기를 직접 선택하고, 연주 방법, 리듬 등을 만든다. 가족들은 역할을 분배하고 만든 음악극을 연주해 본다.	경험함으로써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허혜진, 2010).
6	긍정적 상호작용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는 '겨울바람' 노래의 색깔 악보와 다양한 악기를 준비한다. (롤리팝 드럼, 키즈 드럼, 카바사, 에그 셰이커, 투톤블럭, 케스터네츠, 트라이앵글) 가족구성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선택하고 색깔 악보에 맞춰 연주한다. (악기 탐색 활동) - '엔터테이너' 음악에 맞춰 동작 지휘를 해본다. 지휘자가 된 사람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정해준 후, 악기에 맞는 동작을 정한다. 음악에 맞춰 동작 지휘를 하면 가족들은 지휘를 보고 자신이 연주해야 할 타이밍에 정확히 연주한다. 지휘가 익숙해지면, 소리의 세기와 빠르기까지 함께 지휘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자로서의 리더 경험은 아동의 자존감 발달과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에 도움을 주며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인식하며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오상규, 2006). - 4분음표로 일정하게 계속되는 왼손 베이스는 음악을 듣고 활동하는 가족에게 안정적인 음악 환경을 제공한다. - 다양한 음색의 오르프 타입의 악기들은 촉각, 시각, 청각 등 다각적인 경험과 폭넓은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현주, 2005).
7	긍정적 상호작용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공주의 '가족' 노래를 익히고, 가사 내용을 이야기 나눈다. 치료사가 준비한 색깔 악보에 맞춰 붐웨커를 연주해 본다. 반주에 맞춰 단음으로 연주 해 본 후, 익숙해지면 화음으로 맞춰서 연주해본다. 완성 된 후 반주 없이 가족들의 붐웨커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는 가족의 모습을 표현한 가사 내용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도움을 주며 가사의 토의와 연주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 붐웨커 연주는 협동심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성취에 관심을 가지고

			<p>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긍정적으로 상호의존을 필요로 한다(최은아, 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 협동과 조화로 이루어져야 하는 북웨커는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소속감을 주며 만족감과 자기 존중감, 자기 조절력을 갖도록 돕는다(최애나, 2007).
8	변화 느끼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가 만든 ‘버려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노래를 익히고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본다. 자신이 버려야 할 것, 가져야 할 것과 다른 가족구성원이 버려야 할 것 가져야 할 것을 서로 작성하고 이야기 나누어 본다. 이야기 나누는 것을 토대로 가사를 만들어 송라이팅 한 후, 간단한 카드를 만들어 악기에 붙이고 대체 악기를 만든다. 송라이팅 한 노래에 맞춰 대체 악기를 연주하고 연주한 느낌과 들었던 가족구성원들의 느낌을 서로 나누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3화음으로 된 짧은 동기들의 반복적인 구성의 노래는 빠른 속지를 돕고 익숙하게 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안전한 음악적 환경이 되게 한다. - 노래 만들기는 무의식적 기억 및 사고를 이끌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통찰과 서로의 강점을 나눔으로써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서로 공감과 경청을 하도록 이끌어 주고, 이해를 돕게 한다(이나경 2011).
9	변화 느끼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기 때 익혔던 ‘네모의 꿈’을 상기시켜 불러본다. 음악치료를 하고 나서의 나의 감정과 기분, 변화된 가족 간의 관계나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 나누어 보고 송라이팅 하여 불러본다. 2회기 때 송라이팅 했던 네모의 꿈을 들어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들었을 때의 기분은 어떤지 이야기 나누어 본다. - 이한철의 ‘슈퍼스타’ 노래 익히고 불러본다. 가족구성원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부분에서 카주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인 감정 표현을 통해 솔직한 자기표현과 자신의 변화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 - 희망적이고 용기를 주는 가사 내용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희망을 주며 긍정적인 자기 지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주 해 보고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본다.	
10	종결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주인공인 간단한 음악극을 만들어 본다. 치료 상황에서의 과정과 감정들 중 가장 생각나는 것이나 느낀 것들을 이야기 나누어 보고 공통 주제와 가족구성원들에게 어울리는 악기를 정한다. 가족구성원들은 동그랗게 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주제에 맞는 상황을 생각하며 즉흥 연주를 해보고, 느낌을 이야기 나누어 본다. - 1회기부터 10회기까지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나 노래가 있다면 나누어 본다.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나누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사이코드라마는 주인공, 주제, 설정되어진 상황에 즉흥적인 음악과 대화와 행위를 통하여, 표현과 의사소통을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하며, 가족들 간에 상호 교류 및 적극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한다(백경실, 2004). - 그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의미, 변화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처음 때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정리해 보며 변화를 경험하고 종결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한다.

<부록 2> 가족음악치료 참여 동의서

- 가족음악치료 참여 동의서 -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음악치료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서경희입니다.

본 연구는 ‘가족음악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격성 및 가족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이며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가족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 올바른 의사소통을 목표로 각 음악활동의 치료적 근거에 입각해 구성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음악치료는 2014년 월 일 매주 2회씩 5주 동안 총 10회기로 진행되어 월 일에 종료되며, 프로그램의 주된 활동은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가사 토의, 악기 연주, 즉흥연주 등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비디오 촬영이나 오디오 녹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 외에는 보지 않을 것이며 연구가 끝나면 자료는 폐기될 것입니다. 참여 가족의 인권과 안전을 약속드리며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년 월 일

참여자	서명
연구자	서명

<부록 3> 교사 보고용 공격성 척도

교사 보고용 공격성 질문지

안녕하세요. 이 평가지는 아동의 공격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평가지에 응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지의 각 문항내용에 따라 선생님께서 아동의 행동에 관하여 평소에 관찰하신 것을 토대로 아동의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아래의 보기와 같이 ○를 해주시면 됩니다.

< 보 기 >

1. 친구와 싸움을 한다.

그리지 않는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③	4	5

검사일시 : 2014년 월 일

검사자명 : _____ 남() 여()

아 동 명 : _____ 남() 여() / 나이:()

* 본 질문지는 일괄적으로 모아서 통계처리 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서경희

행동 종류	행 동 목 록	그러지 않는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신 체 적 공 격	대 물 공 격	1. 이 아동은 학습 교재나 물품을 부러뜨린다.					
		2. 이 아동은 친구의 소지품 이나 학용품을 자주 던진다.					
		3. 이 아동은 문, 의자, 책상, 교실 물품 등을 발로 찬다.					
		4. 이 아동은 문, 위자, 책상, 책꽂이 등을 손 또는 물건으로 세게 두들긴다.					
	대 인 공 격	5. 이 아동은 친구들을 차고 때린다.					
		6. 이 아동은 친구를 위협 하여 울린다.					
		7. 이 아동은 다른 아이를 시켜서 시비를 걸게 하거나 공격을 하게 한다.					
		8. 이 아동은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짓궂게 괴롭힌다.					
언어적 공격	9. 이 아동은 다른 친구들이 한 행동을 놀린다.						
	10. 이 아동은 친구들과 말다툼을 잘 한다.						
	11. 이 아동은 친구를 따돌리는 말을 잘 한다.						
	12. 이 아동은 고자질을 잘 한다.						

<부록 4> 가족응집력 척도

< 설 문 지 >

* 다음은 귀댁의 가족과 관련된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과 남편 (또는 당신과 아내), 자녀들을 포함하여 현재의 우리 가족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에 따라 빠짐없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결혼 년수:

자녀 수 :

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한다.					
2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인정해 준다.					
3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끼리 같이 하기를 좋아한다.					
4	우리 가족은 외부사람보다 가족끼리 더 친밀하다.					
5	우리 가족은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6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밀함을 느낀다.					
7	우리 가족은 공동활동을 할 때 빠짐없이 모든 가족이 참여한다.					
8	우리 가족은 가족이 함께 할만한 일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9	우리 가족은 자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서로 상의한다.					
10	우리 가족은 가족의 단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